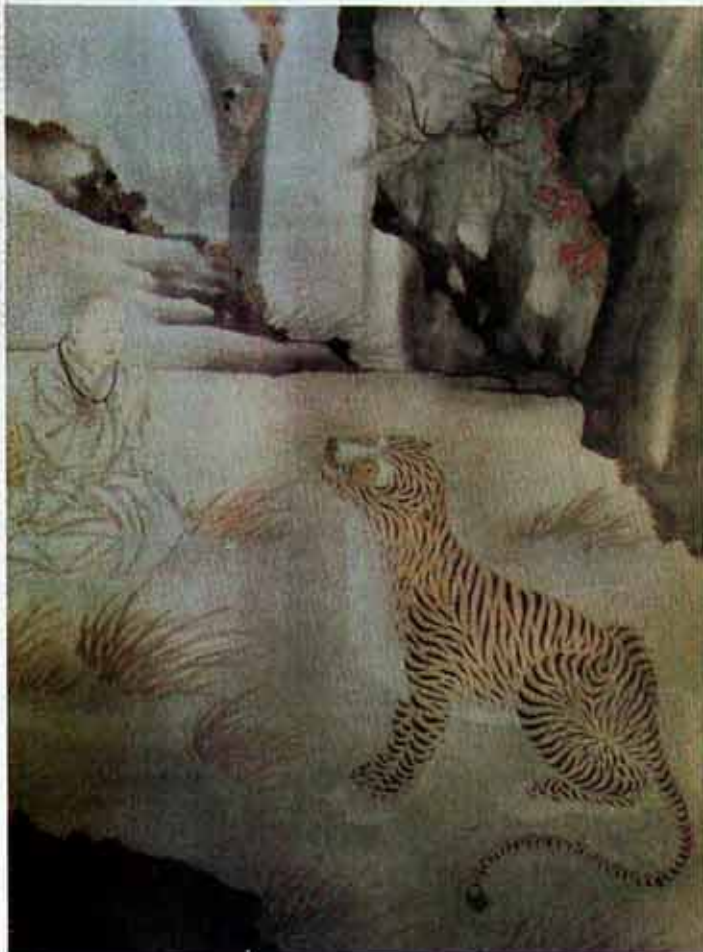


용맹·보은·護法 상징하는 영물



호랑이에게 몸을 던진 태자

옛날 어떤 큰 나라에 전단마재라는 태자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비심이 깊었던 그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볼 때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주었다. 모든 것을 나누어 더 이상 어려운 이웃에게 줄 것이 없어지자, 태자는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기에 이르렀다. 자기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간 사실을 안 부왕은 태자를 다시 궁중으로 불러들여,

배풀기 좋아하는 전단태자 굶주린 범위에 몸던져 보시 500수행자 발보리심 계기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남에게 배울 것을 허락하였다.

한편 그 나라의 수도 가까운 산에서 용맹이라는 선인이 오백 명의 제자와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태자는 그들에게도 음식과 의복을 바쳤다. 어느 날 공양을 드리고 선인의 살법을 들던 태자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입고 있던 비단옷과 치장을 궁중으로 돌려보냈다. 그 길로 선인들과 함께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전하여 들은 왕후와 태자비는 몹시 슬퍼하며 태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태자의 수행을 막을 수가 없었다.

◊스님이 호랑이에게 '금강경'을 독경해 주고 있는 그림(부분도).

이렇게 몇 해가 지나는 동안 태자의 수행은 더욱 그 도가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산아래 깊은 골짜기에 사는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일곱 마리 낳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큰 눈이 내려 어미 호랑이가 며칠째 먹이를 구하지 못하였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들은 이미 굶주림에 지쳐 있었고, 조금만 더 지나면 굶주린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잡아먹을 지경에 놓여 있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여 듣고 비랑 위에 서서 어미 호랑이와 새끼들의 기절한 모습을 본 태자는 큰 자비심을 느꼈다. 태자는 호랑이의 먹이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비랑에 앉아 선장에 들었다. 과거에 무수하게 지나간 생애를 하나하나 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과거 생애에서 자신은 중생을 위해 천 번이나 몸을 희생하며 불도를 이루겠다는 서원을 하였고, 구백아흔아홉 번까지 실행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한 번 더 자신을 희생하면 그 서원이 모두 이루어짐을 알게 되자 기쁘기가 한량 없었다. 이때에 부랑장이라는 부하가 선인들을 공양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왔다가 태자의 결심을 알고는 슬피 울면서 칭송하였다.

태자는 엄청난 재 비랑에서 뛰어내려 호랑이의 먹이가 되었다. 굶주려서 기진해 있던 어미 호랑이는 태자의 살을 먹고 기운을 차려 새끼들에게 젖을 먹였고 마침내 새끼와 어미가 모두 살아나게 되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은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통곡소리로 가득하였다.

이 일로 용맹 선인은 깨달음을 얻었고 오백 명의 제자들도 크게 보리심을 내었다고 전한다. 호랑이를 위해 몸을 던져 보시행을 행한 태자가 바로 전생의 부처님이다. (본생담에서)

이 일로 용맹 선인은 깨달음을 얻었고 오백 명의 제자들도 크게 보리심을 내었다고 전한다. 호랑이를 위해 몸을 던져 보시행을 행한 태자가 바로 전생의 부처님이다. (본생담에서)

우인년 불교小史

고려 태조 팔관회 개설 : 황룡사탑 6차 중수

- ▲436년(고구려 문자왕 7년)=7월 고구려 금강사(金剛寺) 창건.
- ▲858년(신라 현안왕 2년)=10월 보조제정(普照制正), 왕명으로 가지산사(迦智山寺)에 머무름.
- ▲918년(고려 태조 1년)=11월, 팔관회 개설. 해마다 상례(常例)로 삼음. 고려사에 따르면 전 왕조에 걸쳐 1백14회의 팔관회 기록이 있음.
- ▲1098년(고려 숙종1년)=△9월27일, 회경전(會慶殿)에서 <인왕경>을 3일간 강의. 왕이 몸소 승려 1만 명을 공양. △황룡사탑 중수(제6차).
- ▲1278년(고려 충렬왕 4년)=6월26일, 왕이 도당(都堂)에 상서(上書)하여 담선법회(談禪法會) 변명.
- ▲1338년(고려 충숙왕 복위 7년)=△8월24일 임명국사(靈峰) 충강(冲剛) 입적(1275년 8월3일 출생). △흥왕사(興王寺) 광학회(廣學會) 설치.
- ▲1158년(고려 의종 12년)=△보조국사 지눌 출생(1210년 3월27일 입적).
- ▲1398년(조선 태조 7년)=5월, 대장경관을 강화 선원사(禪源寺)로부터 지천사(支天寺)로 옮김.
- ▲1458년(조선 세조 4년)=왕이 대장경 50부 이출(取出)을 지시. 승려 심미(審美) 죽헌(竹軒) 등의 감독으로 2월에 사역(始役)하여 4월에 마치고 각도 명신 거창(巨昌)에 분장(分藏)함.
- ▲1878년(조선 고종 18년)=5월3일, 간성 건봉사(乾鳳寺) 화재, 3천1백83칸 소실.
- ▲1938년=△3월11일, 30본산 주지회의 개최(중앙불교진흥회 교당에서). △3월23일, 제24회 전국수좌대회 소집. △5월23일, 총독부, 보물·고적의 보호를 위해 표석을 세우기로 결정. △8월28일, 김제 금산사 미륵존불 및 건물 낙성. △10월25일, 각황사 대웅전 낙성(1949년 태고사로 개칭, 현재의 조계사)



◊홍명보

불심으로 월드컵 16강 고지를 넘자. '98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팀(상비군) 36명이 꾸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축구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홍명보 서정원 하석주 최영일 김병지 장대일 선수 등 불자선수들이 포함돼 불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홍명보선수는 일본으로 이적하기 직전인 6월5일 축구 후배들을 위해 케달리며 장학금 5천만원을 쾌척했다.



◊서정원



◊김병지

프랑스월드컵 16강 불자선수가 이끈다

홍명보 서정원 하석주 등 '불심 무장'

현역 축구선수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기는 처음이어서 유난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는데, 홍명보선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월드컵 3회 연속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것 같다"고 밝힌다. 홍명보와 함께 월드컵 3회 연속 진출을 하는 서정원 선수도 어머니와 부인의 간절한 기도가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남한산성 망월사에서 올리는 기도를 떠올리면 남편들이 서정원 선수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진다는 것. 홍명보 서정원 선수의 3회 연속 월드컵 진출은 김주성 선수 이후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서 이번 월드컵에서 그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한다. '원발의 달인' 하석주선수는 최선을 다하는 장인정신이 부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집념이 "부처님의 구도정신에서 배운 것"이라 말한다. 이들 외에도 백전 노장 최영일선수, 수문장 김병지 선수, 떠오르는 셋발 장대일선수 등도 불심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각尽其의를 다하고 있다. 홍명보 서정원 하석주 최영일 김병지 등 불자선수들이 불심을 바탕으로 마음껏 내재된 최고 프랑스 그라운드를 내달리는 모습이 기다려진다.

김지연 기자

건국신화 등장...우리민족과 친숙

민족불교와 호랑이

우인년, 호랑이 해가 밝았다. 호랑이는 88년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선정될 만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백수의 왕 호랑이는 강인하고 용맹스런 영물로서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는 물론 여러 설화에 등장하며, 그림과 조각 등 많은 미술품에도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에 대한 숭배는 다른 어느 민족보다 강렬하다. 산에 대한 숭배는 그 속에 사는 호랑이와 연계돼 산신의 사자로 묘사되거나 호랑이 자체가 산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불교가 재래 신앙을 수용하면서 호법신중(護法神衆)의 하나로 불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 증거로 사찰에는 산신각이 모셔져 있고 그 안에는 반드시 산신탱화가 있다. 산신탱화를 보면 식발한 스님이 손에 <법화경>

나 단주를 쥐고 있으며 호랑이가 그 옆에 다소곳이 일드려 있는 모습이 주류를 이룬다. 우리나라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불교설화가 많다. 첫째 사찰연가설화에 나타난 호랑

산신탱화에 호법신중으로 속담·그림·조각 등 회화묘사

이는 자유자재로 인간으로 변신해 인간과 교류하거나 스님의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갚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삼국유사>의 '호랑이를 사랑하고 호인사를 창건한 김현의 이야기'를 보면 흥륜사에서 탑돌이를 하던 김현은 한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호랑이가 변신한 것이었다. 이 소녀를 따라 호랑이굴에 들어간 김현은 소녀의 형제호랑이에게 잡혀 먹히

게 될 뻔 했으나 소녀의 기지로 목숨을 건진다는 얘기가. 또 '회방사의 오누이탑에 얽힌 이야기'는 한 스님이 호랑이 굴에 걸린 가시를 꺼내 준 보답으로 미녀를 얻었지만 마음의 혼란임이 계속 정진하자, 이에 감동한 여인이 스님과 외남매를 맺고 함께 불도에 정진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불계 화신(化身)의 예이다. 동진 용인2년(398)에 개달스님은 감초를 캐러 갔다가 오랑개에게 잡혀 우리 속에 갇히게 됐다. 그 해는 흥년이 들어 사람까지 잡아 먹던 때라 개달스님은 밤새껏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보문공을 자국한 정성으로 외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큰 호랑이가 뛰어들어 개달스님을 구하고는 사리져 버린다. 관세음보살은 고통과 죽음의 역운을 당했을 때 믿고 의지하면 능히 벗어날 길을 베풀어 주신다. 자유자재로 변하면서 대중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이 호랑이로 화한 것이다.

聖鐘社 主要鑄鐘紹介

聖鐘社 主要鑄鐘紹介

1. 1951년 12월 1일 설립

2. 1952년 12월 1일 설립

3. 1953년 12월 1일 설립

4. 1954년 12월 1일 설립

5. 1955년 12월 1일 설립

6. 1956년 12월 1일 설립

7. 1957년 12월 1일 설립

8. 1958년 12월 1일 설립

9. 1959년 12월 1일 설립

10. 1960년 12월 1일 설립

梵鍾 鑄造 47年!

韓國 梵鍾의 傳統을 이어갑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CO.

● 서울 展示場
TEL : (02)733-6141, 4849
(02)734-6141
FAX : (02)733-4840
H·P : (011)268-1779(代表者)

● 本社·工場
京畿道 龍仁市 器興邑 古梅里 697-5
TEL : (0331)283-2083